

동국대,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8위 달성

역대최고 성과, 3년 연속 Top 10 진입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순위

※ ()안은 전년도 순위, 점수는 300점 만점

순위	대학명	점수	순위	대학명	점수
1 (1)	서울대	226	10 (10)	중앙대	162
2 (2)	연세대 (서울)	224	12 (12)	서강대	160
3 (3)	성균관대	215	13 (13)	아주대	158
4 (4)	한양대 (서울)	209	14 (14)	한양대 (ERICA)	156
5 (5)	고려대 (서울)	199	15 (17)	인하대	147
6 (8)	경희대	175	16 (18)	국민대	145
7 (6)	이화여대	172	16 (14)	한국 외국어대	145
8 (9)	동국대 (서울)	169	18 (16)	서울과학 기술대	144
9 (11)	서울시립대	164	19 (24)	전북대	141
10 (7)	건국대 (서울)	162	20 (18)	세종대	140

받았다. 이는 인문학 중심이었던 대학이 이공계 분야를 육성하기 시작하며 융합의 시너지가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 받는다. 특히 동국대는 기존의 강점인 인문사회 연구를 유지하면서, 이공계와 인문학을 융합하는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동국대는 교수연구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4계단 상승했고, 이는 종합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연구부문 비중은 32%를 차지한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지표다. ▲교수당 외부 연구비 7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8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1위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8위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8위 등 교수연구 부문 전

했다. 학생교육 부문은 취업이나 학생 창업 지원과 성과, 현장실습과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국대는 ▲순수취업률 7위 ▲국내 학생 중도포기율 4위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3위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5위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4위를 기록했다. 동시에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강조하며 동문네트워크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지원에서 모두 우수한 대학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학평가 결과를 접한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인 8위를 달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토대로 연구 성과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며 “다소 순위가 낮은 교육 여건과 관련한 지표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는 최근 제2건학을 위한 건학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단과 법인,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세계 속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국대학교가 2023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8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으로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동국대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대학의 높은 교육 수준과 우수한 학문연구 활동을 인정

체적으로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약진해 10위에 올랐다.

또한 동국대 강점인 학생교육 부문에서도 전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순위를 유지

2023 송년의 밤 성료

경영학과

- 일시: 2023.11.22.(수)
- 장소: 로얄호텔서울



경영정보학과

- 일시: 2023.11.03.(금)
- 장소: PJ 호텔



회계학과

- 일시: 2023.11.17.(금)
- 장소: 리버사이드 호텔



경영대학원

- 일시: 2023.12.06.(수)
- 장소: 동국대학교 상록원



경영관에 다목적 세미나실 조성 추진

권익헌제자사랑기금 재원으로 내년 2월 완공 예정



권익헌제자사랑기금(2억3천7백만원)은 경영학과 권익헌 교수가 작년 8월 명예퇴직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경영대학은 권익헌 교수의 기부 취지를 살려 경영관을 대표하는 다목적 세미나실을 경영관 2층에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 장소는 접근성, 대표성, 그리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관 2층 CEO ROOM과 맞은편 MBA203강의실

을 통합하여 조성하기로 하였다.

세미나실의 명칭은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권익헌 교수의 제안으로 ‘나눔세미나실’로 정하였다.

나눔세미나실은 약 70여평에 13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고, 계단식구조에 최신 음향 및 냉/난방시설, 대형

스크린 2개, 대형모니터 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나눔세미나실이 조성되면 학부, MBA, 최고위과정 강의실 및 중소규모 학회 유치와 OT, 졸업식, 전체 교수회의 등 경영대의 각종 행사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나눔세미나실은 12월 중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1월중 공사를 진행하여 2월 중순에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면 교수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 SK SV(사회적가치) 학술대상 수상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기여한 이에 게 주는 2023년 SK그룹 SV 학술대상 수상자로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가 선정됐다. 이 교수는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2000년대 초반 윤리경영 과목을 처음 개설하는 등 학계에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래에셋 공동창업자 구재상 회장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임용



지난 11월 14일, 동국대학교 본관 4층 총장 접견실에서 미래에셋 공동창업자인 구재상 회장의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임용장 수여식이 열렸다.

구재상 석좌교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총 책임자로서 70조의 국내·외 자산을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며 한국 펀드사업에 큰 기여를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서울경제신문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기업인 대상, 한국경제신문 다산금융인상, 한국펀드평가 한국펀드대상 등을 수상하였고, 매경이코노미에서는 5년 연속('07~'12)으로 올해의 CEO로 선정되었다.

구재상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이번 임용으로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교육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희 교수

회계학과 조광희 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차차기 회장에 선출

회계학과 조광희 교수가 지난 11월 11일 열린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차기(3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한국회계정보학회는 1985년에 회계학 연구·교육과 학술 교류, 산학협력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족했고, 등재학술지인 ‘회계정보연구’와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교수-원우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 열려

MBA 총학생회, 학술제 & 운동회 & 가을소풍 개최

경영전문대학원 총학생회(18기, 회장 이수연)에서는 23학년도 2학기동안 학술제(9월), 운동회(10월), 소풍(11월) 등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들을 개최하였다.

지난 9월 16일, 라마다 호텔에서 2023 가을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비대면 시대 Better Data Better

Healthcare”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정욱 원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최진욱교수와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권호열교수의 초청강연이 있었고, 2부에는 만찬과 19기 신입원우들의 소개가 진행되었다.

10월 28일에는 “뽀(FUN)뽀(FUN)하게 1등만하는 동국MBA 가을운동회”가 만해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단체 공튀기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단체 운동을 통해 원우들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1월 25일에는 교수, 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일대에서 “응답하라 동국MBA 가을소풍”을 진행하여 원우들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주관하고 (주)페이스메이커스가 운영하는 동국대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 최고위과정(이하 GSMP)이 지난 9월 9일 입학식과 함께 교

MBA,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 최고위과정(GSMP) 신설

육에 들어갔다.

제1기 GSMP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30여명이 입학했다. 1959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멘토 후보들이 국내외 최고의 전문 강사와 함께 멘토로서의 소양,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 및 멘토·멘티 실습을 통해 스타트업 전문 멘토로 성장할 예정이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 경영 및 기술 각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 멘토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감사진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 정욱 원장은 “이 과정을 통해 스타트업 멘토 관련 학습뿐만 아니라 원우들 간 그리고 강사들과도 교류를 통해 진정한 멘토로서의 소양과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2학기 ‘밥 잘 사주는 경수(밥경수)’ 시행

경영대학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경영대학은 2023학년도 2학기에도 ‘밥 잘 사주는 경수(경영대 교수님)’ (이하 밥경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이 전격적으로 실시된 2022년 1학기부터 시작된 ‘밥경수’는 경영대학 사제

간의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고, 매 학기 재학생들의 신청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올 2학기에는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교수 및

학생 1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정욱 학장은 “경영대학 교수, 학생간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밥경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023-2학기 경영학과 장학금 지급

2023학년도 2학기 DBA Scholarship, DK글로벌 장학생 선발

지난 11월 17일, 경영학과 전승우 교수(학과장), 안영찬(경영 85) 동문은 2023학년도 2학기 경영학과장학기금(DBA Scholarship) 및 DK글로벌장학기금 장학생을 선발하였다.

DBA Scholarship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명(1학기 7명, 2학기 3명)에게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

었다. 또한 경영학과 재학생의 해외 교환학생 지원을 위한 DK글로벌장학기금 장학생 2명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년 최대 1만불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영학과장학기금’은 경영학과 동문회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DBA

Scholarship’, ‘전문자격증 장학’, ‘해외 유학지원금 및 본교 대학원 진학지원금’ 등을 매학기 지원하고 있다. ‘DK글로벌 장학기금’은 DK메디컬솔루션 이창규회장(경영 61)님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매년 해외 교환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24명 합격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하 CPA)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최종합격자 수는 전년대비 137명 적은 1,100명으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합격률(26.3%)을 보였다.

동국대는 전년대비 6명이 증가한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그 중 12명은 경영대학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두 학기의 학비를 100% 감면받게 되며, 최종합격한 학생은 잔여 학기 등록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대학 동현제(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 박청규)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반시험을 거쳐 열람실 좌석 제공 및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최종 합격자 명단 (가나다 순)

강홍규(경제14), 김다현(법학16), 김은형(경영16), 김지훈(경제15), 박상구(불교10), 신규연(경영14), 오명훈(회계17), 위서진(경영16), 유진성(경영13), 이경미(회계17), 이선호(경영13), 이성윤(경영16), 이영동(경제15), 정지원(경제14), 조새한(경영17), 조재혁(경영16), 최대일(경제13), 최명섭(산업14), 최민호(경영16), 현유나(경영18), 황정원(법학18), 황현승(경영16) 외 2명

공인회계사, 이경미(회계, 17학번)

“힘들수록 행복한 순간은 빨리 옵니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학과에 17학번으로 입학하여 2023년 8월에 졸업한 이경미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회계학과의 학생회 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에 회계학과 학생회장으로 1년간 역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계학과에 진학하여 회계원리 수업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막연하게 회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여름에 우연히 회계사가 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며 강한의지를 갖게 되었고, 학생회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처음엔 회계사라는 직업을 좋아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하다보니 회계사가 되어 회계감사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면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수험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험 준비

회계사 시험은 크게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시험이고 2차시험은 주관식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방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로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첫째, 1차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지만 결

코 객관식문제를 잘 풀어서만은 합격할 수 없습니다. 흔히 1차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객관식강의를 수강하여 첫 수험기간 1년 중 60%이상을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같은 방식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시험이 상대평가이므로 최대한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커트라인 점수를 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강의는 재무회계와 세법만 수강하였고 이외의 과목은 객관식문제를 먼저 접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념서를 통해 보충하여 기본강의를 듣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개념공부 시간을 단축시켜주었고, 남들보다 빠르게 연습서공부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은 상대평가이므로 다른사람보다 뛰어나야하며, 다른 경쟁자의 실력보다 앞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차시험을 칠 만큼의 실력을 갖추어야만, 다시 말하자면, 연습서를 충분히 풀어낼 능력이 있어야만 객관식시험도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연습서를 풀지 못한다면 1차시험을 안전하게 합격하기는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범위를 줄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1차 시험의 암기과목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범위를 줄여 집중도를 높이는 것보다 모든 범위에 대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공부시간을 늘린다는 각오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시험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 반드시 나오며, 범위를 하나도 줄이지 않아도 모두 공부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각오로 공부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결

코 나약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2차 시험을 미리 걱정하여 1차 시험준비과정에서 앞서서 개념을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을 깊게 이해하는 것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도 충분하며 우선은 1차시험을 합격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식은 숲을 먼저 이해하고 그 이후에 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원 간 연계, 그리고 how보다는 why에 집중하여 우선적으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관식 문제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동차 때 5유예를 한번 겪고 이후 2유예를 거친 뒤 합격했습니다. 5유예가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why에 집중하지 않았고, 개념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2유예 이하가 된다면, 시중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시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수월하게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험 직전에는 “이보다 많이 공부할 수는 없다.” 혹은, “나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계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시험 직전에 이 같은 자신감이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수험생활에 들어가기 전, 대학생 3년간 휴학하지 않고 학생회장 활동도 하며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대학 입학 후 학교생활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 해서 보내야 공부도 미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차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보내신 후에 꿈을 향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오명훈(회계, 17학번) “꾸준함을 기반으로 최고점 득점 목표로 공부”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학과에 17학번으로 입학하여 2023년 8월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오명훈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 적성 검사 결과에서 저의 성향이 회계사와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고 그 때부터 회계사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재무제표 감사업무가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20대 초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

2019년 8월부터 사회복지원으로 복무하며 2021년 1차 시험을 목표로 퇴근 후와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업 수험생과 비교하여 공부량이 부족해 결국 1차 시험에는 불합격하였는데 당시 복무와 공부를 함께하다보니 한계가 느껴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친형에게 전화하여 이야

기를 했는데, 형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 여유롭게 생각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의 위로가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기 덕분에 기반을 든든하게 쌓아올려 두 번째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수도 없이 많이 올 텐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힘들음을 공유하고 마음을 굳세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1차 시험 결과가 좋아 자신감을 가지고 2차 시험을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2차 시험 5과목 중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두 과목을 간신히 합격선을 넘긴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유예기간에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를 극복하는데 집중하여 생활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려고 초반엔 2~3달 스테디에 가입해서 공부습관을 기르기도 하였고 불합격 과목 중 재무관리는 기출문제에 너무 몰두한 것, 세법은 실전 연습 관

련 지식이 부족했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공부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기간에 단순하게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응시자들보다 뛰어난 점수로 합격하자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생각 덕분에 시험 까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 노하우 및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꾸준함은 모든 시험 합격자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모두가 꾸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몇 년 동안 공부, 운동, 휴식 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 붓는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학우님들을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회계사 시험은 응시자들이 준비 상태로 누가 더 잘 버티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로 무너지고, 화나는 순간에 인생 살면서 이런 시간도 한번쯤은 있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정예원(경영, 16학번)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갖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16학번 정예원입니다. 학부생 시절의 저는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 수업에 지각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몰아서 공부하기에 급급해 밤새워 공부하기도 하면서 말이예요.

금융공기업 선택 이유

다소 틀에 박힌 대답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심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을 선택한 이유 역시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며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문이 ‘금융’이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

졸업 후 본격적으로 취업준비에 들어가기 전 공백이 컸던 저는, 공부습관이 잡히지 않자 회계사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수업을 수강하고, 이후에는 강의실에 남아 자습하는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회계사 준비생들 만큼만 공부하면 금융공기업 필기시험에 떨어질 일은 없다!’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다만 졸업 후 필기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학부생 시절부터 다양한 재무 및 회계 과목을 수강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특히나 경영학부가 제공하는 재무 관련 과목은 거의 모두 수강하였고, 이 과정이 필기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매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그래서 아깝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고 싶은 일, 일하고 싶은 기업을 찾는다면 장기적으로 취업 후 삶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도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은 때라는 건 없으니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삼수를 해서 대학교에 왔고, 휴학도 한 번 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취업이 늦어지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다양한 이유로 취업이 늦어진 동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역시 가끔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취업했어도 괜찮았겠다 싶기도 합니다(웃음).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학우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 공기업에 많이들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인데 도전을 망설이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입사 후 따듯하고 반갑게 맞아 줄 선배들이 있으니 앞으로 회사에서 많이 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평가 3년 연속 Top 10과 최고 순위 8위 달성을 축하하며



경영학과
이영면 교수

단과대학인 경영대학이 잘 나가려면 우선 대학교가 잘 나가야 한다. 대학교가 시원치 않는데 경영대학이 잘 나가기란 쉽지 않다. 동국대학교에 경영대학이 만들어진게 언제인가? 최소한 내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부임한 1994년에는 경영대학이 아니라 경상대학이었다. 경영학과는 경우 1959년에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설립되었지만, 경영대학은 이후에 경상대학이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물론 그 사이에 회계학과 그리고 정보관리학과(지금의 경영정보학과)가 설립되었다.

중앙일보는 1994년 처음으로 대학평가를 시행했는데 초기라고 할 수 있던 2005년 동국대학교는 44위였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위였다. 해화, 연희, 보성 전문학교를 언급하며 3대 사학의 기억 속에 있던 동문들은 학교를 찾아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국문학과, 경찰행정학과, 연극영화학과 같은 인문사회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공대와 이과 계열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구성원들은 당시에 한 신문사의 주관적인 잣대의 대학평가를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평가지표를 고민하면서 순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총장을 외부에서 스카웃했고, 국제화 지표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대규모로 영어원어민 교수를 채용했다. 영어강의수를 늘리기 위해 필자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FKTU와 KCTU라고 설명하면서 영어강의를 진행했다. 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강의평가 결과를 한 학기에 세 번씩 공개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평가에 연연한 급격한 변화였다. 연구업적이 부실한 교수님들은 학술부총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교수와 직원 모두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이 증가하는 호봉제 임금체제에서 삼성그룹사에 버금가는 순수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

교수와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원위치시키려는 집행부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나 총장실을 점거 당하면서도 소수의 학과는 폐과를 결정했고, 약학대학을 신설했으며, 첨단학과를 만들어 정원도 늘려나갔다.

이러한 학교 차원의 변화에 비하면 경영대학은 특수대학원이었던 경영대학원의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외에는 큰 변화를 비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경영대학 전임교원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경영전문대학원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우리 학교도 인기가 예전만큼은 아니다. 동대입구역에서 내려서 학교에 들어서면 경영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동안 한번은 학술관으로의 이전 그리고 다른 한번은 혜화관으로의 이전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 다 경영대학 내부 구성원의 이견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변화는 불안을 가져온다. 현재가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변화과정에 따라오는 예측의 어려움과 불안은 기존의 상황에 집착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경영대학 내 세 과의 통합은 2010년에 시도되었다가 4년여만에 다시 세 개 과로 원위치되었다. 이번 중앙일보 평가에서 20위 이내에 든 대학교들의 경영대학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모든 대학들이 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잘 교육시켜서 더 좋은 사회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 학교는 중앙일보 평가에서 역대급 성적을 기록했지만 QS 세계대학 평가나 아시아대학 평가에서는 순위가 뒷걸음쳤고, 여타 대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다. 변한다고 해서 꼭 향상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으면 향상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영대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대학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서는 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아무래도 단과대학 차원에서는 정보나 재정적인 역량이 부족하기에 대학본부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영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파이선이나 알(R)과 같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강의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3년만에 졸업생을 배출할 수는 없는가? 현장실습 교육은 어떻

게 확대할 것인가? 공과대학과 복수 전공을 필수화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고민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수들이다. 최근 대학들은 교수들의 승진기준을 대폭 올려서, 승진기준을 맞추기 위한 논문게재에 힘들어 한다. 그런데 10년 이상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로 연봉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10여년의 수고 끝에 정년을 보장받으면 그때부터는 자유라는 점이다. 정년보장은 이제 눈치보지 말고 제약조건 없이 연구에 정진하라는 의미인데, 일부 교수님들은 그때부터 논문게재에 멀어지고 학회와도 멀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경영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임에도 기업과 멀어진다. 그러니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더 이상 교수들을 찾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라고 선언한 교수들도 있다. 그런데 대학 문화는 이러한 자유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한 지도 모르겠다. 나는 연구는 안하지만 강의는 잘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를 하지 않는 교수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연구가 부족하니 대학원 강의도 부담스럽고, 논문게재가 잘 안되니 대학원생도 배우겠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교수의 역할은 학원강사와 달리 연구를 하고, 연구소 연구원과는 달리 강의를 하고 제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이 세 가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셋째, 사실 학생의 경우 재학 중에는 중앙일보 평가가 각종 대학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졸업한 이후가 문제다. 질문은 이렇다. 다음의 100여개 대학의 졸업생 중에서 관장은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 10개를 선택해 보세요와 같다. 여기에 동국대학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일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사업을 하든 우리 졸업생은 동국대학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관장은 졸업생이 되려면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래야 학교를 떠나 자랑스러운 동문이 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평가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학생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하지 않는 것과 같다. 개인은 1만 시간으로 변할 수 있지만, 대학은 10만 시간, 100만 시간이 필요하다.



Just DU it!

시대를 앞서가는 융복합 인재가 되라

전문 비즈니스 리더 양성

- ▶ 동국 MBA

경영 × DATA/의료기기/약학 융합 인재 양성

- ▶ 비즈니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MBA
- ▶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 ▶ 약학 MBA

글로벌 인재 양성

- ▶ 글로벌 MBA(영문과정/중문과정)

최고의 직장인 친화형 MBA

- ☑ AACSB인증 한국형 MBA
- ☑ 경영학적 지식과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법(파이썬, R) 균형 습득
- ☑ 이론(전임 교수) + 실무(현업 전문가) 협동 강의
- ☑ 1.5년(계절학기 포함)만에 석사학위 취득
- ☑ 주중(수/금) 야간 비대면 + 주말(토) 대면수업
- ☑ 다양한 장학금 및 높은 장학금 수혜율
- ☑ 서울의 중심 남산에 위치한 편리한 접근성

2024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신입생 모집

- 일반전형 원서접수 : 2023. 10. 4.(수)~11. 3.(금)
- 수시전형 원서접수 : 2023. 11. 13.(월) ~ 12. 15.(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02-2260-8884~5, 8882(중문과정) (09:00 ~ 17:00)
- 홈페이지 : mba.dongguk.edu • 이메일 : mba@dongguk.edu